

한라시론



김 양 훈
프리랜서 작가

매해 한식(寒食)이 되면 상귀리와 구업리 김해김씨 켄당들은 물피봉 기슭에서 묘제를 지낸다. 세상이 달라져 후손들이 하나둘 직장을 찾아 마을을 떠나 살게 되면서부터는 양력 4월 둘째 일요일로 묘제일이 바뀌었다. 묘제는 물피봉 중시조(中始祖)를 시작으로 원뱁디에 묻힌 3대까지 제사를 지낸다. 지금은 친족들이 순번을 정해 제수를 준비하지만, 옛날에는 임정이 종가 며느리인 어머니와 상귀리 켄당이 번갈아서 제수(祭需) 음식을 장만했다.

어린 시절 추억 속 묘제는 고사리 장마철이라 안개 자욱한 날이 많았다.

켄당(眷黨)의 추억

어린 등허리에 제수 구역을 지고 이른 아침 집을 나서면 새벽바람이 북북했고, 어떤 해는 가랑비도 내렸다. 길섶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을 밟으며 묘역에 오르면, 언제나 상귀리 친척들이 먼저 도착해 봉분에 돌아난 잡풀 따위를 뽑거나 흐트러진 산담을 고쳐 쌓고 있었다. 어렸던 임정이 종손은 중산간 상귀리에 떨어져 사는 켄당들의 경제가 신비롭기까지 했는데, 커서야 비사를 들었다. 그들은 1901년 이재수난이라 부르는 신축민란에 천주 학쟁이란 이유로 가문에서 쫓겨난 후손들이었다. 상귀리가 큰 집 종가, 우리집은 가지(家枝) 종가인 셈이다.

중시조 묘제를 마치고 원뱁디로 가는 길목에는 제주도 천연기념물 제441호인 400년 된 곰솔(熊松)이 서 있다. 솔가지 위에 흰 눈이 쌓이면 시냇물을 마시는 백곰을 닮았대서 옛사람들이 불인 이름이다. 곰솔 너머 펼쳐진 수산저수지 독길에 서

면 구업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고, 갯무릇 장다리꽃이 가득 피어 있어 아름다웠다. 수산저수지는 노꼬매오름에서 흘러내리는 담단이내(川)를 막고 벼농사를 짓는다고 2년 여의 공사 끝에 제방을 쌓아 물을 채웠다.

1959년, 이승만 정권의 쌀농업 진흥책에 편승한 저수지 공사로 인해 70여 세대의 하동마을 사람들은 썩팍없이 인근 마을로 강제이주를 당해야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4·19혁명으로 무너지자 저수지는 제대로 사용하기도 못한 채 방치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는 수산리 하동마을은 근시안적 농업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후 1980년대 말 어느 레저회사가 수산저수지 주변을 워낙 시설과 유료 낚시터로 개발해 낚시꾼과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 회사는 보트장과 야외 풀장, 식당을 지어 한동안 운영했지만, 유원지는 90년대 후반 문을 닫고 현재 건물과 놀이

시설은 흉물로 방치돼 있다. 무용지물이 된 저수지가 담단이내가 흐르는 들판으로 원상복구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1901년 신축민란 당시 천주교를 믿었던 이유만으로 임정이 김해김씨 가문에서 쫓겨난 상귀리 켄당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대정골 인성리 추사작거지 건너편 도로에 세워진 삼의사비의 첫머리를 생각하게 된다. ‘여기 세우는 이 비는 종교가 무릇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권세를 등에 업었을 때 그 폐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적 표식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전국은 몸살을 앓고 있고 4월 총선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종교의 말을 쓴 사이비 집단이 설치면 세상이 어떠한지라는 걸 요즘 생생하게 보고 있다. 정치강패가 설치된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다. 일찍이 신동엽 시인은 이렇게 일갈했다.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사설

위험지역서 오는 입도객 걸러낼 수 없나

제주지역이 코로나19에 잇따라 확산되고 있어 큰 일입니다. 지난 2일에 이어 4일 네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4명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내려왔거나 해당지역을 다녀온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제주에서는 중국인에 의한 감염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이뤄진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제주도의 방역망도 대구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대구지역은 검사를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일 오후 8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5000명이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851명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186명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대부분의 확진자는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대구지역

신규 확진자의 60% 이상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확진자가 10명중 6명이 대구지역에서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구지역은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우선순위를 일반 시민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방역대책도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제주에 들어오면 2주간 격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위험지역에서 제주로 오는 입도객에 대해서도 특별관리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4명이 하나같이 대구와 직접 관련됐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지역의 주민이나 경유자에 대한 선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애김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감염원 차단은 한발 늦은 뒷북 대응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온정의 손길로 이겨 내자

제주사회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이 일부 도민·기업인에 의한 온정의 손길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현장에 도움될 인력·물품지원이 잇따르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돕기 후원도 활발하게 이뤄져 사회 전반에 “함께 이겨내자”는 분위기로 기울입니다.

40년 가까이 간호인력으로 일하다 작년 말 퇴직한 전직 보건진료소장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인식, 가족 만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들이 임시 수용된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야간 12시간 근무에 나서 훈훈한 온정을 전합니다.

한 주류제조업체는 알코올 소독효과와 확대되는 방역작업을 감안해 주류제조용 주정을 희석한 알코올 5000ℓ를 도제난안전대책본부에 주정을 기부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돕기 활동도 사회 전반에 들불 번지듯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특별모금에 나선 지 몇새째인 3일 오전까지 1500여만원의 성금과 소독제 마스크와 같은 각종 물품기탁 등이 잇따랐습니다.

행정 역시 나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제주시 중앙로 중앙지하도상가 시설에 대한 임대료 30% 감면에 나섰습니다.

예로부터 마을에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돕던 제주의 미풍양속 수놓음과 제주 백성을 살린 ‘김만덕’ 정신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만 합니다. 시대·지역에 상관없이 십시일반 온정의 손길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난 위기가 닥칠수록 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네번째 확진자 등장과 밀접 접촉자 수십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감안할 때 온정의 손길 필요성은 큼니다.

우리를 손에 달린 코로나19 극복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더 많은 도민들이 온정의 손길에 동참하길 기대합니다.

편집국 25시

‘성스럽다’에 점 하나 떼어 붙이면



강 다 헤
편집부 기자
dhkang@ihalla.com

‘상스럽다’ ‘성스럽다’. 우리말이 이렇게나 똑똑하다. 점 하나 떼어 붙여도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릇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은 그가 사용하는 단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는 조금만 생각해도 문제가 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는 말이 매우 많다.

“집사람” “여자가-” “예민중” “짱깨”... 표준어나 비표준어나 하는 분류를 떠나 위 표현들에 문제의식을 느끼는가의 여부에는 ‘언어 감수성’이 개입한다고 본다. 언어 감수성은

습관과 말본새로 드러난다.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주류를 이루는지, 맥락과 인권을 배려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마비다. 당연하게 영위해 온 일상 속에서 감염병을 옮긴다는 건 두려운 일이다. 감염병이 퍼지는 만큼 공포에 기반한 혐오와 차별의 정서가 퍼져간다는 것은 공식에 가깝다. 그만큼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극성을 부린다. 질병보다 사람을 더 해치는 것은 혐오와 차별이다.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세상에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 혐오를 멈추고 포용의 언어를 건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언어는 생동한다. 흐르는 시간만큼 언어도 변한다. 모든 사람은 말을 줄이거나 늘려 쓸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옹색하지 않으려면 선을 지켜야한다. 언어적 감수성이야말로 가장 먼저 강조되어야 할 습관이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다. 언어가 틀에 박히면 생각도 틀에 박힌다. 점 하나라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우리말을 성스럽게 여길 것인가, 상스럽게 내뱉을 것인가. 성숙한 언어 감수성이 우리말, 나의 인격,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킨다.

뉴스-in

“노지·하우스 감귤 각별히 주의하세요”

추위·더위·건조 날씨 예상

○…전·평년 대비 따뜻한 겨울 경과로 인해 올봄 노지·하우스 감귤 관리에 비상.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올해 1~2월 평균기온이 전·평년 대비 1.9℃, 2.5℃ 높았고 강수량은 전·평년 대비 99mm, 37.2mm 많았으며 일조시간은 전년 대비 28.9시간 적은 상태인데 3~5월엔 꽃샘추위와 이른 더위, 건조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농업기술원은 “이같은 날씨로 노지감귤 저온피해 발생 및 하우스감귤의 생리낙과 증가와 병해충 발생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 고대로그자

배달음식 위생 강화 착수

○…제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음식 주문이 크게 증가하면서 7월말까지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특별 점검에 착수.

시는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 종사자

는 즉시 업무 배제 및 식품취급 금지 등을 통해 식품안전과 코로나 예방을 기해나간다는 방침.

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현 조치하고 비위생적 식품 취급 및 관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한 식품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문예재단, 방문 최소화 추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는다면 최근 민원인 방문 최소화를 추진.

문예재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확산 기미가 진정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협조를 부탁한다”며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엔 담당자와 사전 약속 후 찾아주길 바란다”고 안내.

이와함께 문예재단은 2020년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교부·정산 워크숍을 현장 설명회 대신 안내자로 배포로 대체하고 기획워크숍도 서면이나 비대면 컨설팅으로 변경. 전선희기자

부 고

현창부(前 감사원 사무차장) 어머니
제주양씨 순실(향년 85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4일 05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3월 5일(목요일)
▶발인일시: 2020년 3월 6일(금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하귀농협 장례식장 201분향실
▶장 지: 아흔아홉골 가족묘지

아 들 현 창 부 며느리 신 영
창 흘 최 지 연
창 민 오 성 립
딸 현 숙 사 위 김 호 기
이 숙 고 승 화
희 순 고 정 상
손 자 현 호 영
호 경 호 근
호 성 호 준

※ 연락처 : 현창부 010-2373-9911
현 숙 010-2648-4610
현이숙 010-4691-1231
현희순 010-3697-3508

부 고

강승화(前 제주도청 국제자유도시 본부장) 아버지 福州姜公 신학(향년 101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4일 01시 3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3월 5일(목요일)
▶발인일시: 2020년 3월 6일(금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제2분향실
▶장 지: 한림읍 월령리 선영

아 들 강 승 화 며느리 오 향 자
봉 일 김 옥 순
순 원 신 영 미
봉 수 고 복 심
딸 강 순 자 사 위 김 승 두
정 자 김 치 국
민 서
손 자 강 동 휘
외손자 김 성 화

※ 연락처 : 강승화 010-8916-8658
강봉일 010-3407-0005
강순원 010-5500-0700
강봉수 010-4699-888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청주한공 규백(향년 91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3월 5일

아 들 한 태 성 며느리 최 영 미
태 완 이 후 진
딸 한 복 선 사 위 홍 희 철
복 희 강 성 삼
지 혜 (복순)
길 선 부 영 주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

당 회사는 2020년 3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사오니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게재일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주식회사 신해디앤씨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271
청산인 김 정 환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